

권혁승 교수의 <남북 왕조의 멸망과 하나님의 섭리 역사> 14강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추락 : 유다의 마지막 왕들

오늘의 포인트

1. 유다의 마지막 역사는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2. 유다의 멸망이 더욱 가속화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3. 세 차례에 걸친 바벨론의 이스라엘 침공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1. 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역사

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역사

1. 요시야의 아들 3명(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과 손자(여호야긴)에 의한 통치
2. 이들 4명의 왕들이 통치한 기간:
22년 6개월 (평균 통치 기간은 약 5.6년)
3. 공통점은 모두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
4. 바벨론과 애굽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 국가 멸망이 급속히 닥침

2. 여호아하스 (주전 608년)

(열왕기하 23장 31~35절)

여호아하스

1. 요시아의 아들로 23세 왕위에 올라 3개월간 통치
2.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
3. 애굽 왕 느고에 의해 하맛 립나에 감금 당함
4. 은 10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느고에게 바침
5. 애굽으로 잡혀가 그곳에서 죽음

3. 여호야김 (주전 608~597년)

(열왕기하 23장 36절~24장 7절)

여호야김

1. 요시야의 아들로 25세 왕위에 올라 11년간 통치
2. 애굽 왕 느고가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개명함 (애굽의 봉신)
3.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
 - 애굽에 바칠 조공을 위해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면서 일부는 착복함
 - 선지자 우리아를 살해함
 -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불태움
4. 주전 605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1차 침공:
 - 다니엘을 비롯한 왕족, 귀족이 포로가 됨
5. 3년을 섬긴 후 바벨론을 배반함
6. 주전 597년 아람, 모압, 암몬과 합세한 느부갓네살 연합군에 의한 2차 침공
7. 바벨론의 예루살렘 포위 공격이 진행되는 중 사망함
8.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왕위에 오름

4. 여호야긴 (주전 597년)

(열왕기하 24장 8~17절)

여호야긴

1. 18세에 왕위에 올라 3개월간 통치
2.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
3.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포위 공격으로 유다가 점령 당함
 -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이 약탈 당함
 - 여호야긴과 왕의 어머니, 아내들, 내시들, 권력 있는 자들이 포로로 끌려감
 - 용사 7000명, 장인 대장장 1000명이 포로로 끌려감
 - 에스겔도 이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감
4. 여호야긴의 숙부(요시아의 다른 아들) 맛다니아를 시드기야로 개명하여 왕으로 세움

5. 시드기야 (주전 597~586년)

(열왕기하 24장 18절~25장 7절)

여호야긴

1. 21세에 왕위에 올라 11년간 통치
2.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
3. 애굽의 새로운 바로 호브라(렘 44:30)와 협력하여 반-바벨론 세력 형성 (주전 588년)
4. 시드기야 재위 9년 10월 10일(588년 1월) 느부갓네살의 3차 침공
 -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
 - 포위 공격은 1년 7개월간 지속됨 (주전 586년 7월)
 - 기근이 심하여 양식이 고갈됨
 - 성벽이 파괴됨
5. 시드기야의 최후
 - 무너진 성벽 사이로 빠져나와 아라바길로 도망
 - 여리고 평지에서 체포되어 립나의 바벨론 왕 앞으로 호송됨
 -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함
 -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히고 낫 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감
 - 바벨론에서 죽음

6. 예루살렘과 성전 파괴

(열왕기하 25장 8~21절)

예루살렘과 성전 파괴

1. 느부갓네살의 신복 시위 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옴
2. 성전과 왕궁을 불사름
3.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불사름
4.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버림
5. 성에 남은 자와 항복한 자를 포로로 끌고 감
6. 비천한 자들은 포도원을 다스리는 농부로 남게 됨

7. 마지막 통치자 그달리야 총독 (주전 586년)

(열왕기하 25장 22~26절)

마지막 통치자 그달리야 총독

1. 바벨론은 요시야의 서기관이었던 사반의 손자 그달리야를 총독으로 임명
2. 그달리야는 미스바에 총독부를 설치하고 통치함
3. 그달리야는 예레미야의 후원을 받으며 선정을 펼침
4. 2개월 뒤인 7월 왕족인 이스마엘이 자객 10명과 함께 그달리야를 살해함
5. 바벨론의 보복 공격을 두려워한 백성은 예레미야를 대동하여 애굽으로 피신함
6. 느부갓네살 재위 23년(582년) 바벨론의 재침공으로 745명이 끌려감 (렘 52:30)

강의를 마무리하며

우리 삶에 **적용**할 점은?

오늘의 적용

1. 여호와 보시기에 가장 무서운 악은
살아계신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2.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다 (롬 1:24)
3.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노력은 오히려
멸망(실패)을 앞당길 수 있다

권혁승 교수의 <남북 왕조의 멸망과 하나님의 섭리 역사> 14강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추락 : 유다의 마지막 왕들